

# 목포시 '1천만 관광객시대' 연다

### 체류형 상품 '해상W쇼'·나혼자 남도밥상 출시 단계적 일상회복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재시동

목포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관광에 집중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목포시는 맛의 도시 브랜드와 사업-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관광객 700만명을 기록했다. 2018년 250만명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였다.



평화광장 불꽃쇼.

상승세를 이어가 2020년을 1000만 관광객시대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이 침체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객 551만 여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관광객의 관심을 이어갔다.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는 체계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자세로 관광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실을 다지며 코로나 상황에 맞춰 시기를 살펴 선보인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출발은 '목포 해상W쇼'다. 코로나19로 개막이 지연된 목포 해상W쇼는 지난 5일 첫선을 보이며 인파가 평화광장으로 몰려

들었다. 목포해상W쇼는 평화광장에 마련된 해상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뮤지컬과 춤추는 바다분수쇼, 불꽃쇼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으로 목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야간 관광 상품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춤추는 바다분수 정비를 위해 숨을 고른 뒤 내년 4월 재개할 계획이다. 시가 준비한 또 다른 카드는 목포 관광의 대표적 콘텐츠인 맛이다. 단체 관광에서 탈피해 소규모 개별 관광이 대세

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워드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다.

시는 1인 한상차림인 '맛갈스러운 나혼자 남도밥상'을 준비했다. 지난 5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해 목포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개발했다.

지난달 품평회에서 상품성 등이 검토된 한상차림은 이달부터 업소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다음 주 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다른 미식관광상품은 '놀9억9 맛있는 목포여행'이다.

목포 9미(味)를 즐기는 상품으로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선보인다.

1박2일 코스는 목포9미 체험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 당일(일요일) 코스는 목포 주전부리(목화송평·비파다쿠아즈·맛김새우칩) 만들기 체험과 독립예술영화 관람으로 구성됐다.

1박2일은 10만원(숙식비, 체험비 등 포함), 당일은 1만원으로 목포시청 관광과(061-270-3512)에 문의하면 참가할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관광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높아져 가는데 목포해상W쇼가 이 같은 상황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음을 지난 공연을 통해 확인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무안군, 남도장터 매출 33억원...전남 시군 1위

### 공격적 마케팅 등 경쟁력 확보

무안군이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활용해 특색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 남도장터를 이용한 무안 농특산물 온라인 매출액이 10월 말 기준 33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남도장터에는 (유)자연식품 등 무안 관내 98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주 판매품목으로는 무안을 대표하는 양파, 양파즙, 고구마, 마늘, 무안돌김 등이며, 매출액 비중은 가공식품(76.3%), 농산물(16.7%), 축산물(6.7%), 수산물(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무안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비대면 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해 남도장터

무안군 기획전 등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도 적극 나섰다.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등 자매결연도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실시해 1000박스 이상 판매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농산물 가공산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군고구마, 페이스 등 청년층의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가공부드러운, 마케팅까지 제품 생산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추진 중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맛·향 뛰어난 완도 유자, 본격 수확

### 1kg 3천원선...올 2400t 수확

'유자의 고장' 완도군 고금면에서 본격적인 유자 수확이 시작됐다. <사진>

완도군에 따르면 지역 유자 재배 면적은 197ha이며 올해 수확 예상량은 2400t이다.

황금빛 완도 유자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미세 먼지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피가 두껍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더 들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으며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 역시 다량 함유하고 있다.

유자 수확과 함께 완도농협에서 유자 수매도 시작했다.

상품은 1kg에 3000~3500원, 중품은 2000~2900원, 하품은 1000~1900원에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상국립공원 우리가 지키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최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공원관리선 '국립공원303호' 취항식을 가졌다. '국립공원303호'는 총톤수 8.55t, 길이 10.46m, 너비 3.40m, 깊이 1.50m, 최대속력 30노트, 총 정원 8명(선원 3명, 임사승선자 5명)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 3천만송이 애기동백꽃 향연 펼쳐진다

### 신안군, 내달 10일 겨울꽃 축제

신안 '섬 겨울 꽃축제'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열린다.

천사섬 분재공원 내 5ha 부지에 심어진 1만 7000 그루의 애기동백 숲에서 열리는 축제에 오면

애기동백 꽃길 3km를 거닐며 3000만 송이 애기동백꽃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다양한 체험행사와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설치해 겨울 눈꽃 속에서 피어난 애기동백꽃과 잘 어우러지도록 연출할 계획이다. 천사섬 분재공원은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이 내려다보이

는 압해읍 송공산 남쪽 기슭에 조성됐다.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삼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명품 분재와 조각품 등 아프리카 석조 문화의 진수를 전시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탁 트인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새하얀 눈 속에 피어난 새빨간 애기동백꽃을 보는 기쁨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 산정동 행복마을 작은도서관 북콘서트

### 문학박람회 시낭송 7명 수상 기념

목포시 산정동 행복마을 작은도서관이 지난 12일 시와 음악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는 지난달 목포문학박람회에 참여한 행복마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예향 시낭송 대회 일반부에서 은상 2명, 박학성 전국백일장 대회 시낭송 부문에서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선율의 통기타 연주와 가수 박효상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수상자들이 직접 시를 낭송

했다.

김정선 도서관 관리자는 "작은도서관이 책을 읽는 본연의 역할 외에도 시를 낭송하고 차담도 나누는 동네 사랑방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한 달 동안 시 25편을 깃발 형식으로 게시해 주민들이 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복마을 작은도서관은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성인 대상 낭독과 필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